



김정록 중앙회장 '신년사'

새보람

SAEBORAM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CPL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08호

2010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내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점차적인 시행으로 인해 차별금지법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장애인당사자의 힘으로 장애인차별의 고리를 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백호(白狐)가 온다

김경일 (수필가/강원협회 사무처장)

소리 없이, 실 새 없이
내리는 눈, 눈
순은의 눈발 가로 질러
어흥!
백호(白狐)가 오신다.

스치고 간 날들은 무효,
출렁이던 경제
수상한 소문 퍼뜨리던 괴질
낯도깨비들의 탈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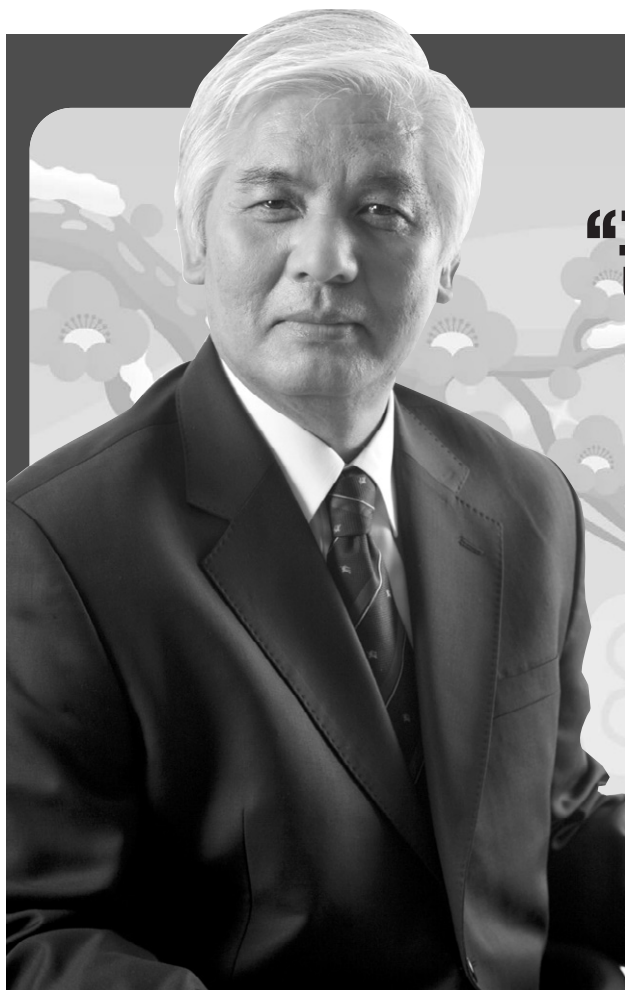
가라! 잘 가라.
백호의 등 타고
솟아오르는 붉은 해
그늘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

국태민안(國泰民安)
빙긔 백호가 웃고,
장애인이 웃는
좋은 세상...



신년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다함께 행복한 2010년을 향해”



존경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동지 여러분!

희망찬 2010년, 경인년(庚寅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해의 시작은 항상 그렇듯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올해는 호랑이의 해 중에서도 60년 만에 한번씩 돌아온다는 ‘백호의 해’라서 그런지 강인한 기상이 더해져 불끈 힘이 솟습니다. 새해아침, 세상을 온통 하얗게 덮은 눈도 지난해의 고난과 역경을 덮기라도 하는 듯,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장애인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져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동지 여러분!

지난해는 ‘제6기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새롭게 출범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2009년 7월 취임 후, 저는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지장협” 건설을 목표로 정하고 전국을 순회하였습니다. 전국의 회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협회 운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이를 협회 개혁의 동력(動力)으로 삼아 ‘새로운 지장협’, ‘미래지향적인 지장협’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가 협회를 안정시키고, 협회 안에서 장애인의 삶의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40만 회원동지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장애인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애인동지 여러분!

올해는 ‘제6기 지장협’의 새로운 정책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실질적인 첫 출발의 해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 중 좋은 것은 더욱 살려나가고 잘못된 것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조직의 변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해, 발전적이고 안정적으로 협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0년, 50년 후를 생각하며, 차세대에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설계’를 해나갈 것이며 나아가 “소외됨이 없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10년 新지장협 프로젝트」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개발을 위해 ‘장애인복지연구소’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연구소는 우리 협회가 장애인단체로서 시민사회에서 선량한 조직시민으로서 사랑받게 하고, 우리 협회를 비롯한 장애계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변화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회의 정책결정과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정책 개발 및 전달체계의 중심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뿌리를 내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수익사업모델’을 개발하고 16개 시·도 협회의 ‘표준사업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산업구조에 발맞춰 녹색성장산업, 신(新) 성장동력산업, IT 산업,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1차 단순경공업’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장협 수익사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신기술 사업’을 발굴·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협 직영사업부를 통해 저의 공약 사항인 16개 시·도 협회에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설립되는 표준사업장은 각 지역별 특산물 가공, 지역별 역점 사업과 연계하여 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장애인작업장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업 형태의 사업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480만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정치세력화를 위해 ‘2010년 지방선거 장애인 메니페스토’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연금은 3,185억원에서 1,519억1,900만원으로 삭감되어 장애인 100명 중 14명, 즉 14%만이 연금을 받게 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최고 금액도 월 15만1천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장애계가 그토록 갈망했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은 160여억원

만이 책정되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저소득 1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장애연금의 현실화’와 ‘LPG 지원 유지’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가 얼마만큼 땀을 흘렸는지, 도대체 우리가 왜 그토록 ‘장애연금의 현실화’와 ‘LPG 지원 유지’를 위해 절규했는지 이 정부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전국 최대의 장애인당사자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수장으로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당사자 및 친(親)장애인사들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회원을 비롯한 전국 480만 장애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조직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하며 투명해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투명성 확보는 조직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척도이며, 우리협회는 그러한 변화와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동지 여러분!

저는 앞에서 설명 드린 ‘2010년 新 지장협 프로젝트’를 동력(動力)으로 삼아 호랑이와 같은 웅혼한 기상과 용맹함으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여,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말할 수 있는 선진사회를 이루어나가는 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년 후, ‘2011년 신년사’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행복했었던 2010년을 회고하는 글로 장애인동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인년(庚寅年)을 맞이하여 장애인 여러분과 모든 가족, 그리고 모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밝고 희망 넘치는 활력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서로서로 사랑을 나누며 새해를 시작합시다. 백호의 힘찬 운기(運氣)가 전국 480만 장애인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사랑하는 장애인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년 1월 1일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정록

“희망찬 경인년, 새로운 출발!” 중앙회, ‘2010년 시무식’ 실시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들이 지난 4일 열린 '2010년 시무식'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 중앙회는 지난 1월 4일(월), 이룸센터 2층 다목적 프로그램실에서 '2010년 시무식'을 갖고 경인년(庚寅年) 새해의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중앙회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시무식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은 “2010년 경인년은 60년만에 찾아온 왕중의 왕인 백호의 해 인 만큼, 산야에서

우렁차게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힘찬 기개로 열과 성을 다해, 480만 장애인 모두가 활짝 웃는 행복한 한 해를 만들자”고 제언했다.

이어 “조직의 변화와 개혁에 박차를 가해 차세대에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물론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우뚝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정록 중앙회장의 신년사 후 참석자들은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는 케익절단식과, 파이팅을 외치며 새로운 해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 쌀 115포 나눔 축제’ 실시

여성독지가의 후원으로 시작
저소득 장애인에게 ‘사랑의 쌀’ 전달



김정록 중앙회장이 노원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전개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겨울철 날씨처럼 얼어붙은 장애인 가정의 마음속을 따뜻하게 녹였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난 12월 31일(목)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위한 ‘사랑의 쌀 115포 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록 중앙회장을 포함한 지장협 중앙회 직원들과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차현미, 지장협 산하 시설) 직원들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이날 쌀을 전달받은 가정은 총 115가정으로, 한 가정당 1가마(20kg)씩 전달됐고, 저소득 장애인가정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는 라면 1박스를 추가로 전달했다.

이날의 전달식은 지난달

한 독지가가 지장협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2월 지장협 중앙회(여의도 이룸센터)를 찾은 한 여성독지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무관심으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5백만원을 전달한 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지장협은 이 여성 독지가를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이 독지가의 뜻을 존중해 겨울철 장애인들을 위한 쌀과 라면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이날 직접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며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자”고 위로했다.

이어 “국내 최대 장애인 당사자단체 수장으로서 저소득 장애인들이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학생을 위한 지장협의 두 번째 이벤트

중앙회, ‘영희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장학금 전달식’ 개최



장학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

장애학생 및 장애인 가정 자녀의 학습권을 위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두 번째 이벤트가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와 영희문화재단(대표 정재봉, 이하 재단)은 지난 12월 29일(화) 이룸센터 3층 지장협 회장실에서 「영희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장학금 전달식(이하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재단 측은 김정록 중앙회장에게 3천7백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전국 54명의 학생을 대표해 전달식에 참석한 이현승(17세, 양천고등학교), 김희철(14세, 녹천중학교) 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 선발 자격은 장애학생 및 장애인가정 학생으로 2009년 현재 중·고등·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며, 중·고등학교

생에게 50만원, 대학생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전국의 수많은 장애학생을 대표해 장학금을 받은 만큼, 더욱 학업에 정진하여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지장협은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꿈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장학금을 받은 김희철 군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나보다도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지원을 위해 3,700만원을 쾌척한 재단은 여성복업체 ‘한섬’ 정재봉 대표의 모친인故 김영희 여사의 유산 16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복지재단으로, 지난 2005년 설립 이래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다.

“새보람, 에이블뉴스와 손잡다” 15일, ‘상호 정보제공 협약’ 체결



중앙회는 지난 15일(금) (주)에이블뉴스와 ‘새보람과 에이블뉴스의 상호 정보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새보람’과 ‘에이블뉴스’는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08호 2010년 1월 1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9 편의시설 교육 세미나’ 개최

장애인편의시설의 이해와 올바른 설치방법 교육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대구지원센터(센터장 김창환, 이하 대구센터)는 지난 2009년 12월 22일(화) 오후 1시 달구벌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올바른 장애인편의시설 이해와 설치”를 주제로 ‘2009 편의시설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구 지역의 편의시설 지도·감독기관인 대구시청 및 8개구·군청 담당공무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구광역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의 점검요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건국대학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의 정은영 선임연구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광주지원센터 박현중 과장이 강사로 참여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



‘2009 편의시설 교육 세미나’에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광주지원센터 박현중 과장이 “편의시설의 이해”라는 주제의 강의를 하고 있다.

해와 해석,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법을 위한 사례교육, 편의시설 대상시설 판단유무,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의 행정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특히, 대구보다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가 먼저 실시된 광주의 사례와 경험적 정보 제공 등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주관단체

인 대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2004년부터 실시한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보수교육을 올해부터 확대 실시하여 건축사,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편의시설 설치시민족진단 요원 등의 편의시설 관련종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지역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09년 정기총회 및 업무평가회’ 개최

경북협회 김천시지회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 이하 김천시지회)는 지난 2009년 12월 28일 오후 2시 미가뷔페홀에서 「2009년도 지체장애인 민원·편의시설 상담센터 업무 평가회 및 제20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선하 지회장과 김천시청 서정하 복지위생과장, 조영애 장애인복지담당 계장, 회장단, 운영위원, 분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2009년 지회업무 보고, 센터업무 평가회와 2009년의 활동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천시지회의 ‘2009년 주요활동’으로는 장애인 예술제, 장애인 맞선대회,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춘·하·추계수련회,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중증장애인 리프트 무상지원, 사랑의 김장, 사랑의 쌀·꿀·라면 나누기 등이 꼽혔다.



김천시지회 박선하 지회장을 비롯한 ‘2009년 정기총회 및 업무평가회’의 참석자들이 행사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 사랑의전등 리모컨 나누기는 신규사업으로 지역 사회의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김천경찰서의 ‘업무협약’은 지역 내 장애인 인권보호와 편의증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날 평가회에서는 경북지체장애인 민원·편의시설상담 김천시지원센터(이하 센터)의 ‘2009년도 사업실적 평가’와 ‘2010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센터 직원들

은 지역 내 장애인들의 민원상담 업무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 및 이해촉진과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과 자문활동을 활발히 펼쳐 향후 김천지역을 무장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천시지회 박선하 지회장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역경을 헤쳐 나가는 김천이 아닌, 무장애공간으로 편안하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향 가는 길 걱정없어요!”

중증장애인 귀성길 차량 지원 사업 ‘情담아 고향으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실시한 예정인 귀성길 차량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들은 더욱 훈훈한 명절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지난 2009년 추석,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실시한 ‘추석 귀향길 차량 지원 사업’)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표창대, 이하 경기협회)는 민족 대 명절 설(구정)을 맞이해 장애로 고향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귀성길 지원 사업 ‘情담아 고향으로’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고향에 가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리프트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해 이동편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가족 및 친지와 함께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지난 2009년 도내 중증장애인을 위해 ‘추석 귀향길 차량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경기도 내 등록 장애인으로 이동수단 부재로 고향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며, 협회는 중증장애인(하지장애인 우선) 중 귀성길을 떠난 지 오래된 자를 우선해 선정할 예정이다. 단, 도서·산간 지역은 귀성지에서 제외된다.

귀성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29일(금)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gppd.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장애인복지카드 사본과 함께 이메일(tskkpretty@naver.com),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이수경, ☎ 031) 247-7721~2, FAX : (031) 246-7721>

‘조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김홍수 회장이 지난 2009년 12월 22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열린 ‘조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에서 “지장협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홍수, 이하 강원협회)는 지난 2009년 12월 22(화)부터 23(수)까지 이틀간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도내 18개 시·군지회장, 사무국장, 민원상담원, 센터요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종플루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체육대회를 대체하고, 강원협회 조직원의 행정실무능력 향상 및 친목도모를 꾀하

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장협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김홍수 협회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도청 장애인복지담당 사무관의 장애인복지정책, 강원협회 김경일 사무처장의 행정실무,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실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각 시·군 지회장의 사업계획 발표와 저녁에 마련된 친교의 시간을 통해 조직원간의 친목을 다지며 시·군 지회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날”

‘2009 한마음 대축제’…감사패 전달식 및 장기자랑 실시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제근 관장이 2009년 12월 18일 열린 ‘2009 한마음 대축제’에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의 장기자랑 공연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복지관)에서는 지난 12월 18일(금) 복지관 강당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을 주제로 하는 ‘2009 한마음 대축제’를 실시했다.

지역 장애인은 물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다사다난했었던 2009년을

돌아보고, 희망찬 2010년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천복지관 이제근 관장은 “오늘의 자리가 지역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부디 지난 2009년의 아픔은 모두 잊고 희망찬 2010년을 맞이하자”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단체)에

게 지역 장애인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은 ‘감사패 전달식’과 직원 및 이용 장애인들의 장기자랑이 차례로 실시됐다.

한편, 행사장 내에는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참여한 고려수치침학회 영천시회(회장 이상숙)에서 ‘수치침 자원봉사’가 마련되어, 장애·비장애인 서로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펼쳐졌다.

‘음악회 및 무료급식’ 실시



김천교육청어머니합창단의 ‘작은 음악회’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난 1월 13일(수)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복지관)에서는 김천교육청어머니합창단(단장 류재식, 이하 합창단)이 주최하는 ‘작은 음악회 및 무료급식’이 열렸다.

오전 11시부터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는 김천교육청 류재식 교육장을 대신해 임영대 학부과장, 권오균 장학사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연에서 김천교육청어머니합창단원 25명은 지역 장애인 130여명에게 ‘도라지’, ‘청산은 나를 보고’, ‘사노라면’, ‘동행’, 등의 주옥같은 음악을 들려주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합창단은 지역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써달라며 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음악회가 끝난 후 지역 장애인을 위한 무료급식도 실시함으로써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행복을 몸소 실천했다.

2005년 김천 시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성된 어머니합창단은 매년 복지관, 어린이집, 교도소 등을 순회하며 공연하고 있고, 2007년에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환경 노래부르기 대회’에 김천시 대표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후원자&자원봉사자를 위한 음악회’ 개최



윤석연 관장과 ‘후원자&자원봉사자를 위한 음악회’의 참가자들이 행사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석연, 이하 유성복지관)은 지난 2009년 12월 28일(월) 한 해 동안 지역 장애인을 위해 마음을 나누고 몸으로 헌신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후원자&자원봉사자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올 12월초에 구성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多Dream 후원회(회장 박영환)’의 주관 하에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진동규 유성구청장,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설장수 구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유성복지관 측은 이날 한 해 동안 장애인을 비롯해 유성 지역 내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자와 자신이 가진 일부를 털어 어려운 장애인을 도운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특히 필로소합창단의 고석우 지휘자와, 현악4중주를 비롯해 가수 심신, 오은주, 이범학, 류찬 등의 공연이 펼쳐지며 흥겨운 자리가 마련됐다.

음악회가 끝난 후 유성복지관 윤석연 관장은 “올해로 2회를 맞는 오늘의 음악회가 장애인의 힘겨운 삶을 마음으로 아파하고, 희생하며 함께 걸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다사다난했었던 2009년의 아픔을 모두 잊고 새롭고 희망찬 ‘2010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제5대 유정주 관장 취임

“초심으로 돌아가 전국 최고의 복지관을 만들 것”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임용된 유정주 관장이 취임식 후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임용된 유정주 관장의 취임식이 2009년 12월 29일(화) 김노동 문경시주민생활복지과장을 비롯한 문경시 5개 장애인단체장, 강창교 운영위원장, 장애인,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화) 복지관 내 강당에서 열렸다.

경기불황과 한파로 간소하게 마련된 취임식에서 유정주 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3년 전 복지관장 임용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복지

관을 찾는 고객과 지역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지역주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관을 가꾸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직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복지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정주 관장은 지난 3년 동안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생활체육 보급 확대, 도장애예술제 개최, 기업연계수익형 일자리사업 정착 등 장애인 복지증진 및 조직안정 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장애인예산 대부분 삭감”

기초장애연금 1,666억원 삭감... ‘장애인차량 LPG지원’ 6개월 시한부 전략

2009년 12월 31일(목), 정부의 ‘2010년 예산’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결과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증액한 기초장애연금, 활동보조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특히 기초장애연금의 경우 3,185억 2,500만원에서 1,666억 600만원을 삭감해 1,519억 1,900만원으로 결정, 장애인 10명 중 1.4명만이 연금을 받게 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최고 금액도 월 15만 1천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도 증액시킨 335억원을 전액 삭감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등이 소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제도는 아예 시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중증여성장애인 2,400여명에 출산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모두 삭감돼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 2010년에 도입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장애연금을 비롯한 국회에서 통과된 2010년 중요 장애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돼 장애인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지난 2009년 11월 열린 ‘장애인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이외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23억 7,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58억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원이 증액됐을 뿐이다.

특히 장애계의 숙원인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 예산은 166억원 늘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 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저소득 1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의결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은 73억 6,500만원(전년도 미지급분 73억 1,500만원, 부정수급환수비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던 정부안에서 166억원을 증액돼 총 239억 6,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연료비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오는 2010년 6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예산안이 의결된 후 (31일) 기존 엘피지 지원 대상자에게 “LPG 할인기간 1개월 이내 연장 후 대상자 축소예정. 축소 시기는 별도 통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예산안이 통과돼 올해 엘피지 지원제도가 연장된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토록 했다”며 “지원금액은 변동없이 대상자를 축소해 6월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축소 대상은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한 후 이 달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2급 지체장애인 이모씨(33)는 “사라지는 LPG지원을 장애인연금으로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화가 난다”며 “아직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위험하고 불편한데, LPG 지원제도마저 줄이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출처-에이블뉴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로 명칭 변경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의 가족·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부처 명칭이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정부는 13일(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보육 포함)·노인·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존에 복지부가 가지고 있던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업무는 여성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청소년 및 가족분야 사업부서 인력 국장급 4명, 과장 8명을 포함해 모두 97명과 2500억원의 예산을 여성부에 이관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2008년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가족(보육 포함) 기능을 당시 보건복지부로 이관, 여성정책만을 담당하는 소규모 조직인 여성부로 축소시키고 보건복지부는 가족 기능 및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기능까지 하도록 조치했다.

‘2010년 장애인계 신년인사회’

지난 1월 8일(금) 오전 11시부터 영등포에 소재한 타임스퀘어 5층 아모리스 홀에서 장애인계가 주최하는 「2010년 장애인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계 주요 3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이 공동으로 개최됐다.

한국장총의 김동범 사무총장과 장총련의 서인환 사무총장의 공동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7개 정당 대표 및 관계자, 보건복지가족부 전 재회 장관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최경숙 상임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용홍 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중 사무총장 등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2010년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일 열린 ‘2010년 장애인계 신년인사회’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이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특히 행사 중에는 장애인계의 여러 소망이 담긴 포춘쿠키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소망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고, 장애인 활동가들은 영상을 통해 2010년의 소망을 전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운찬 국무총리는 영상을 통해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대회 후 KBS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진 김정록 중앙회장은 “장애연금을 비롯한 2010년 장애인 예산 삭감으로 전체 장애인계가 가지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를 장애인계의 희망과 의지를 담은 중요한 기회로 삼아 서로 협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장애인 배제시킨 희망근로사업 논란

행정안전부, 접수 및 선발 제외 대상에 장애인 포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으로 시행 중인 '희망근로' 사업에서 중증장애인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자로 발표한 2010년 희망근로 신청자 접수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희망근로 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소정의 심사를 거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공고문에는 접수 및 선발 제외 대상자 목록이 포함됐는데, 이 중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도 포함돼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는 " '중증장애인' 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세분화해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장애인들은 '1~2급 장애인'은 물론 '3급 일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 3등급 이상 장애인' 등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서조차 장애인을 원천 배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은 MB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서민정책 중 하나여서 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관련 기관의 한 일선담당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장애인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장애인을 신청에서조차 배제시

키고 있다"며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중증장애인을 규정한 것을 중증장애인을 우선해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 아니냐. 사업 대상자가 많아 선발기준이 강화된 거라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우선 배제시키는 것은 엄연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것은 장애인을 배제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희망근로사업에서 배제되는 장애인들을 모아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와 11조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다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희망근로 사업 대상이 지난해보다 노동 강도가 강한 사업들로 구성된 만큼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에도 장애인과 관련한 선발 지침이 있었고, 올해 더 보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9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계획'과 시·군·구청 모집 공고란에 명시된 사업 배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중이거나 중도포기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으로 장애인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장애인에 대한 내부 지침 자료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부 자료라 절차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실업대책 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청년실업자나 실직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참여 인원이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대폭 축소됐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됐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통한 민생안정 대책으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됐다가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에이블뉴스>

국민권익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개선권고안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등)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과 보행환경, 여객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13일(수) 밝혔다.

권익위의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0명 이상과 10만명 미만의 도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착 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의 보유대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의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80대를 보유하고, 30만 이상~100만 미만 지자체는 50대를 보유하고, 10만 이상 30만 미만 지자체는 20대를 보유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수요에 대비해 지자체 법정 보유대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것을 개선안에 담았다.

또한 벽지노선 같은 곳에서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상호 보완해 운영하며 간선도로에서는 초저상버스를 운행해야한다고 개선안에 담았다. 언덕이나 경사가 있어서 초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에서는 중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저상버스의 도입기준을 지금보다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포함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운행구역과 이동지원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이번 개선권고안이 조속히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사시 합격' 최영씨, 사법연수원 간다

2008년 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입소를 1년 미뤘던 최초의 시각장애인 사법고시 합격자 최영씨(30)가 오는 3월 어엿한 예비 법조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최씨가 연수원 입소를 미룬 이유는 시각장애 3급을 겪고 있는 장애 때문이었다. 당시 시각장애인의 입소를 위한 준비가 전무했던 연수원과 협의해 입소를 1년 미뤘던 최씨는 컴퓨터를 배우는 등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12일 사법연수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씨는 다음달 23일(화) 연수원 기숙사로 이사한 뒤 오는 3월 2일 정식 입소하게 된다.

장애인이나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최씨는 "일단 연수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연수원도 첫 시각장애인 연수원생인 최씨를 위해 지난 1년간 모두 1억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공사를 했다. 연수원 곳곳에 노란색 점자 블록을 깔고, 강의동까지 연결되는 최단 코스의 기숙사 방도 미리 예약해줬다.

주요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에 음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사법고시 합격자 최영씨

성안내 인식기도 달아 근처에서 리모컨을 누르면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연수원 교수진은 직접 이미 3명의 시각장애인 변호사를 배출한 일본의 사법연수소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해외사례도 참고하고, 최씨와도 수시로 면담하면서 한 해 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교육시설 접근권 관련 판례

“시설 접근권의 보장 없이는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도 없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배움이란 신성한 영역에 포함되어져 살아가게 된다. 웅알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까지 평생 배우면서 살아간다. 배우지 않으면 자아실현도 안 될 뿐더러 현대의 경쟁시대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를 두고, 올 2010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교육청 그리고 우리 편의센터가 공동으로 전국의 학교시설 20,000여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권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 들어가며

장애인 교육권과 장애인 접근권의 영역을 명확히 나누기란 쉽지 않다. 교육시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필수적인 전제사항이지만 이는 장애인 접근권의 내용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교육권은 내용이나 습득방법, 정도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교육시설에 접근할 권리는 접근권의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권의 보장 없이는 그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창원지법 20080423 2007가단27413 판결 : 확정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5년 추락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 2004년 말 피고가 운영하는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친 후 2005. 3.경부터 위 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나. 원고는 경남대학교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교 내의 건물 중 행정대학원이 있는 평생교육관,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구실이 있는 인문관, 중앙도서관, 식당, 학생회관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피고는 경남대학교를 운영하는 자로서 장애인인 원고의 입학에 허가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장애인인 원고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각 건물에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의 미설치, 출입로의 불편,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후속조치 불이행 등과 같이 그 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심한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며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청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위 법률은 사인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2) 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예산의 규모, 정도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 피고 대학을 선택하여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입학한 이상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에게 법적인 장애인 배려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입학하기 이전인 1998.경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주요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왔을 뿐 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또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3. 판 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장애인인 원고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입학 허가 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6. 21. 선고 2001가단76197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 기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배려의무로부터 장애인인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장애인 편의법이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편의법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게 되었다.

- 그런데 위 법률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게 그들의 편의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위 법률 부칙 및 시행령을 통하여 시설주의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예외 및 유보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여, 장애인인 원고가 학교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어 달라는 요구가 있더라도 피고의 위 법률에 따른 배려의무는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원·피고 사이는 일방이 주

된 목적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편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쌍방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쌍방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계약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의 의무를 다한 이상 일응 피고는 장애인인 원고에게 편의시설 이용에 관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일 뿐 아니라 더욱이

① 장애인편의법이 시설보충을 위해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1997. 4. 10.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주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는 부담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장애인편의법은 장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시설주에게 모든 시설을 구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8. 4. 11. 부터 효력 발생) 제14조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시에는 제46조에 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는 가진 자들의 은혜적 배려가 아닌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사회적 책무로서 막연히 예산상의 이유만을 들어 그

러한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모든 인간은 자신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을 보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어 비장애인에겐 그 존재의 가치조차 논의하지 아니하는 이동권이 단순히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이 시대의 모순일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모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결할 문제로서 사람들의 조그마한 노력과 비용의 부담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더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이동권마저 비장애인과는 형평성 및 예산상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그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의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등을 더하여 보면,

-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이상,

- 원고 스스로 피고 대학을 선택하여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입학하였다는 점이나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로써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배려의무의 범위

(1) 제반 법규정(장애인편의법)

- 제3조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 :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3조 [별표 1] 제2-(사)-(1)항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교가 포함됨.

- 시행령 제4조 [별표 2] 제3-(가)항

*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차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이켜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2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와 재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전에 원고가 주로 이용할 건물 내에 장애인 화장실을 조속히 설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05. 7.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행정대학원 내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가 행정대학원 내 3층 강당, 4층 컴퓨터 실습실, 5층 매점 등을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3층에서 진행하던 수업을 1층으로 옮겨 강의를 진행하는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우선 급하게 물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와 매점을 1층에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06. 초경 1층에 정수기를 설치함에 그친 사실,

③ 학교 내 도서관 논문자료실은 2층에 있음에도 엘리베이터가 2층에 멈추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논문자료실을 이용할 수 없었고, 도서관에는 별도의 장

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현재는 설치되어 있음),

④ 도서관의 경우 주차장에서 가까운 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원고로 하여금 도서관 뒤편으로 약 70 ~ 80m 정도 이동하여야 하는 등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부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한 사실,

⑤ 원고가 논문 작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이 요구된 인문관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논문지도실 또한 2007. 5. 25.경에 이르러서야 준비가 완료됨으로써 원고가 전혀 이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에 원고가 재학중에 장애인편의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비교적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장애인인 원고가 좀 더 편리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었던 사항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원고의 주장 중 학생회관 및 식당 진입을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도서관으로부터 식당 등에 진입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입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고, 구조상 계단이 있는 부분에 별도로 원고의 출입을 위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는 없었다고 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불편 및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에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07. 6.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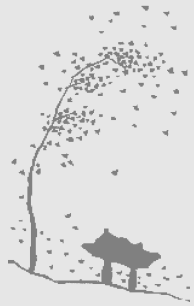
판례는 장애인의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계약에 기초한 배려의무로 다루고 있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접근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보장법 제3조에서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한 2008년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권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단순한 계약에 기초한 배려의무로 다루기보다는 편의증진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해석하고 집행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인식과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빠른 길이 될 것이다.

기사제공 :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 **홍현근 팀장**

〈발췌-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2009년 12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2010년 예산이 결정됐다. 그 결과 기초장애연금, 활동보조 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등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특히 장애계가 그토록 원했던 'LPG 지원 사업'은 2010년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저소득 1급 장애인과 2급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차 상위계층 장애인에게만 지원되어 장애인들의 실망은 커지고 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보고, 몸부림을 쳐봐도 바뀌지 않는 '장애인의 삶'. 해답은 없는 것일까? 본지는 그 해답을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즉 '매니페스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바뀌지 않는 장애인의 삶...해답은 '매니페스토'

선거 시 후보자나 정당에 의하여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선거공약의 일종인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본래 라틴어가 그 기원이다. 영국에서는 매니페스토, 미국에서는 정책(Platform), 독일에서는 선거강령(Wahlprogramm), 또는 약속(Pledges), 계약(Contract)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를 일본에서는 정권 공약으로 지칭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후 정권을 담당하거나 당선되었을 경우, 반드시 입법화 또는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 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로 정의되고 있다.

이런 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 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

이고 확실하게 내세우며, 또한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자원 나아가 우선순위는 구체적인 계약을 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매니페스토는 정책실현을 위한 수치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 목표 기한이 명기되어 있고 정책 간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1997년에 발표된 노동당 매니페스토를 살펴보면, "노동당과 국민과의 계약(contract)"이란 제하의 10대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영국 노동당은 교육을 최우선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제시되고 있고, 각각의 시책마다 기한, 목표, 자원이 정리되어 있다.

노동당의 매니페스토 기한은 향후 4년 내에, 즉 정권을 담당하는 기간 내에 추진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게 된다.

수치가 포함된 대표적 사례는 '5-7세 아동의 학급규모를 30인 이하로 한다', '5년간은 소득세의 증액을 하지 않는다', '입원 대기 환자 수를 10만인 줄인다' 등으로 반드시 실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책에 필요한 자원의 제시 방법에 관해서는 기존 시책의 중지, 축소 등에 의한 자원 확보, 새로운 세금 도입을 통한 자원확보, 공공부문 내부의 효율화에 의한 자원연출 등으로 대별된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입원대기 환자 수를 10만인 줄인다.'라는 목표에 대해서 현행 국민의료 서비스의 효율화에 의한 1억 파운드를 연출하여 시책의 자원에 충당한다는 경우와 같이 개별 시책별로 자원이 확보된다.

이와 같은 영국의 매니페스토와 한국의 선거공약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매니페스토는 지금까지 선거 시 각 정당이나 단체장들이 발표한 기존 공약과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매니페스토가 종래의 선거 공약과 다른 것은 <표-2>, <표-3>에서의 비교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의의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책 추진에 있어 수치를 포함함으로써 허황된 내용, 추상적인 이념, 그리고 단순한 언어의 수식이 아니다. 실현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필요까지 제기하고 있다. 주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요망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둘째 수치 목표나 구체적인 대응력

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역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후보자간의 정책 비교가 용이하며, 후보자간의 논쟁이 가능하며, 정책본위의 선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주민들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신임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정책 실행이 쉽게 되어 정치적 정통성이 있다. 정치가인 수장이 관료조직에 대하여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정책 중심의 정치가 될 수 있다.

넷째 당선 후 정책의 실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알 수 있다. 정책평가인 업적평가가 가능하여 정치행정이 성과주의가 될 수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의 시게후미 마쯔자와 (松澤成文)지사는 최근 자신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일본 최대의 경제인 단체인 경단련(經團聯)은 자유민주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평가를 실시, 일반인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다섯째 정치가가 유권자에 대하여 실행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니페스토에서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경과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은 설명 책임을 지게 된다.

■ 매니페스토의 발전과정 -매니페스토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의회 정치의 본고장 '영국' -

매니페스토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선거에 도입되었다. 즉 보수당 문헌에 의하면 1834년 영국 보수당의 필(Robert Peel) 수상이 자신의 선거구인 영국 중부 지역의 탐워스(Tamworth)의 선거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약 172년전에 영국에 매니

<표-1> 1997년 노동당 매니페스토 10대 비전

1	노동당은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국민소득 대비 정부의 교육지출 비율을 증가시키고 함께 경제적 실체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을 삭감.
2	소득세의 기초세율과 최고세율의 인상 하지 않음.
3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여 경제의 안정 성장을 도모. 산업의 국내?국제경쟁력제고
4	청년실업자 25만명에게 일자리 부여
5	국영의료기관 사무비 삭감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충실 도모.
6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고 범죄유발 요인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처. 재범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재판기간의 단축.
7	견실한 가정과 지역 만들기 지원에 힘써 복지국가의 기반을 확립.
8	환경을 지키며 교통정체, 환경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
9	정치 정확에 힘쓰고 정치권력의 분권화추진. 정당지출의 적정화 도모.
10	유럽에서의 리더십을 영국이 발휘.

<표-2> 1997년 영국 노동당 매니페스토의 예

25세 미만 25만명의 청년 고용
5-7세 아동 학급규모 30인 이하로 축소
향후 2년간은 현재의 지출제한 틀을 넘지 않음.
100만인을 진료대기 상태에서부터 해방

<표-3> 2004년 총선 시 한국의 정당의 청년실업해소 방안

창업촉진, 투자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대책 추진
대국민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신규 채용확대
공기업의 청년채용 적극 권장
통합적 청년실업대책인 YES(Youth Employment System) KOREA를 시행하여 구직자에게 맞는 개인별 직업알선 서비스 제공
고용안정센터를 인력수급 중추기관으로 전문화



지난 2007년 10월 열린 장애인 매니페스토 선거연대 출범식

페스토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마르크스 (Karl Marx)의 1848 공산당 선언 (Communist Manifesto)에서 사용된 Manifesto란 용어보다도 더욱 먼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후 1906년 노동당이 매니페스토를 문서화하였고, 보수당과 자유당 양당도 이에 따르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매니페스토 스타일은 1935년 보수당 매니페스토가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영국에서 1997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후보는 '새로운 노동당(New Labour)'라는 이름하에, 그리고 2001년에는 '영국을 위한 야망(Ambitions for Britain)'이란 이름하에 선거 시 대국민 약속으로서의 정권선택의 수단으로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였다. 물론 보수당도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였으나, 노동당은 자신의 매니페스토를 통하여 선거에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의 신뢰성과 정치변화를 추구, 오늘의 영국을 이끌고 있다.

- '매니페스토 운동' 일본의 선거 문화를 바꿔-

영국의 정치변화에 자극을 받은 일본도 지난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부터 각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매니페스토를 도입하여 오늘날 일본에서 매니페스토에 의한 선거는 중앙정치, 특히 지방정치에서는 일반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치적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에서 매니페스토가 등장한 것은 2003년 1월 마사야수 기타가와(北川正恭) 전 미에현(三重縣) 지사의 제안에 의해 지방선거 시 다수의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03년 4월 실시된 지사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주창한 많은 후보

자들이 승리를 거두어 로컬 매니페스토가 유권자들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된다. 당시 14명의 후보자가 매니페스토를 공표하였고 이중 6명이 당선되었다.

그 후 일본에서 로컬 매니페스토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시케후미 마쓰자와(松澤成文)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 변화를 통하여 일본의 중앙정치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미국,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

미국은 신용을 가장 중요시 하는 사회이다.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 질타를 피하지 못한다.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에 가장 익숙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수 성향의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과 민주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브루킹스 연구소' 구체적인 정책 제안집을 만들고 있다. 또한 정치권, 행정부와의 개별 토론이나 의회 청문회 출석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념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의 정당대회(코커스)에서 인물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을 풀어나가는 방향과 당의 정책들을 당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대통령후보로 나설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한다. 더불어 당내경선 이후의 후보단일화의 명분, '승리한 후보가 패배한 후보의 정책을 얼마나 수용했는가'로 기준을 삼는다.

■ 장애인 매니페스토의 필요성

대선 및 총선, 시의원, 교육감선거

등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거들은 장애인계의 복지정책과 권익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후보가 제시하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을 보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장애인 정책에 참여하거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환경만 마련된다면 장애인 권익과 복지발전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후진적인 한국의 선거문화가 장애인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본지는 매니페스토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개최된 '매니페스토 한국장애인선거연대 발기인대회'의 설립취지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첫째, 선거문화의 후진성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무책임한 공약들이 남발하였고 발전적인 정책에 대한 판단보다는 연고에 따라 투표 하거나 투표환경이 장애인 접근성이 좋지 않아 많은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낮은 투표율 등 선거문화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책과 공약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유권자인 장애인들도 출마자들의 정책과 공약들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 내릴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였으며 장애인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정책 평가지표나 관련 활동들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셋째, 합리적 대안의 부재

장애인계의 경우 각 장애유형별 실리에 따라 장애인정책을 정부관계자 논의하여 정책의 혼선 및 이중성을 보

여 합리적인 대안과 장애인계세력을 성장시켜 내지 못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및 복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악화 되고 있다.

넷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부재

2002년 대선운동 및 2004년 총선연대를 보면 단순히 장애인계만 모여 장애인정책을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의제를 도출하고 합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는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여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의 정치참여 미비

2004년 17대 총선에 장애인 비례대표가 각 당마다 나와 현재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정당마다 형식적인 장애인위원회 활동 모습을 보여 진정한 장애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매니페스토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매니페스토 운동의 확산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은 대선운동을 떠나 장애인계가 먼저 약속 실천을 하자는 생활 문화운동으로서 사람과 사람, 장애사회와 비장애사회가 약속한 사항에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한다.

둘째, 당사자운동의 재정립

현재 장애인계에서 거론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재정립하여 당사자주의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려 단순한 통합의 논리 모순을 지적한다.

셋째, 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발전 정책 제안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권향상 방안 모색과 관련법의 정비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 및 실천운동 전개한다.

넷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

대선을 맞이하여 장애인계의 연대와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당사자주의 구현 및 장애인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발간 및 중앙, 지역별로 정책토론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개최 장애인 사회참여 의식과 생활 속의 매니페스토를 확산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CPL의 성공비결

품질경영으로 '제2의 황금기' 맞아...2010년 '제2의 도전' 시작

여기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넘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재계(財界)를 비롯한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기업과 CEO가 있다. 그 주인공은 설립 10년 만에 '제2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주)CPL과 김정록 대표이사이다.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이 낮다는, 기술집약적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세상의 장벽을 넘어 장애인에게 선망 받는 기업으로 우뚝 선 (주)CPL의 성공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본지는 지난 12일(화) 실시한 취재를 통해 2010년 연매출 100억을 목표로 국제적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제2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주)CPL의 '성공비결'을 전하고자 한다.

(주) 씨 피 엘

김 정 록 대표이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CPL

지난 2000년 9월 설립된 (주)CPL(대표 이사 김정록)은 "Challenging People in Logos(도전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CPL의 대표적인 생산 제품으로는 1회용 주사기, 주사침, 거즈, 붕대 등의 의료용품 및 자동차스페어타이어커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BRAND를 통한 신뢰받는 세계적인 회사"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달리고 있다.

*CPL 기업 개요

- 회 사 명 : (주)씨피엘
- 의 미 : "Challenging People in Logos(도전하는 사람들)"
- 설 립 일 : 2000년 9월
- 대표이사 : 김정록
- 사업영역 : 의료용품 제조, 판매, 무역/ 자동차 부품 생산
- 사 업 장 : 안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안양 제2사옥(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대표전화 : 031)483-7301
- 팩 스 : 031)483-7306

*주요 연혁

- 2000. 01 - (주)씨피엘 설립
- 2003. 10 - 의료기구(일회용 주사기) 생산 라인 가동
- 2005. 06 - 노동부 CLEAN 사업장 인정
- 2005. 11 -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05. 12 - 노동부 장애인 중심기업 선정
- 2007. 09 - 주사기 바늘 생산라인 가동
- 2008. 04 - 안양 석수동 사옥 착공
- 2009. 07 - 김정록 대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취임
- 2009. 11 - 김정록 대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수상(전국장애경제인대회)

* 비전



■ CPL의 탄생

"장애인에게 적합한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 개발"

(주)CPL은 현 대표이사이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의 중앙회장인 김정록 대표가 지난 2000년 9월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중학교 때 사고로 한쪽 발을 잃은 김 대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취업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후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주)CPL을 세웠다고 한다.

장애인 10여명을 고용해 인쇄업으로 시작한 회사는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어느날 밤 김정록 대표는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를 둘러보며 장애인에게 '적절한 업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고민 끝에 '1회용 주사기' 생산으로 업종을 바꿨다. 1회용 주사기는 소모성 제품이라 수요가 지속적이고 작업 과정이 장애인들에게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결과 2000~2003년 2~3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은 2005년 15억원까지 상승했고 같은 해 11월 '100만 달러 수출상'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리고 2010년, 창업 10년 만에 '제2의 황금기'라는 평을 받고 있는 CPL은 올해 연 100억 매출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다.

CPL의 성공에 전문가들은 김정록 대표의 남다른 경영 철학과 맞춤형 업종 선택,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집중력과 성실함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CPL의 성공비결-①

"열정이 있음에 불가능은 없다"

주사기로 사업을 전환한 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됐다. 주요 고객인 병원은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라고 외면했고, 이를 비롯한 '사회적 편견'으로 초창기에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힘들었다고 한다. 또한 장애유형별 적합한 인력배치와 직원교육의 체계화 미흡으로 인한 시행착오도 김 대표를 괴롭혔다.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출 · 퇴근하는

방법부터 직무 규정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했던 초창기에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효율적인 제품 생산에 부담이 되는 직무는 두세 가지로 쪼갬고,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장애유형에 따라 직원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배치했다. 또한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어려운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비슷한 처지였던 동료들과 서로 교감하며 한 마음으로 일했다. 좋은 일은 같이 기뻐하고 어려움은 함께 나눴다. 장애를 지닌 직원들이 직장에서 제 몫을 하면서 가족들의 고통도 한층 줄어들었다. 정신 장애를 가진 직원의 부모는 “드디어 우리 가족도 10년 만에 외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했을 정도였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었다. 장애를 딛고 행복해지길 꿈꾸던 장애인근로자들의 열정은 지금의 CPL을 만든 큰 자산이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들이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같이 근면·성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김 대표는 “직원들이 일반인에 비해 꼼꼼하고 지시사항에 잘 따라준다”며 “교육을 맡아 하다 보니 ‘안 되는’ 장애인은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주)CPL의 주력 생산품 1회용 주사기

■ CPL의 성공비결-② “품질경쟁력만이 살길이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선입견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CPL은 중동, 러시아 등 수출시장에서 지난 3년간 단 한건의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완벽했다. 그것은 CPL에서 공급하는 일회용 주사기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 하에 철저한 위생관리 및 엄격한 제품 검사를 통하여 생산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등록과 ISO9001의 인증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정록 대표는 “1회용 주사기는 사람의 건강과 직결돼 하나의 컨테이너(140만개 물량)에서 불량품 1개만 나와도 전체가 불량 판정을 받을 만큼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이 만든 것이어서 문제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 ‘0’에 가까운 불량률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해외시장에서 먼저 품질을 인정받은 CPL의 제품은 어느새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국내 병원에서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CPL의 주사기가 단지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아닌, 그 어느 회사보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가 장애인의 자존심이라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CPL의 주사기는 이내 의료기 시장을 석권했고, 이는 일반 기업과의 시장경쟁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

또한 수익은 업무효율성 및 시장 확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했고 과도기를 지나 다른 일반기업과 비교할 수 없

는 고차원의 ‘기술적 노하우’를 구축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었다.

현재 CPL의 주사기는 국내의 대학병원, 의원, 약국, 도·소매상 등 전국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국외로는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주)씨피엘에서는 제품생산과 관련한 거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 CPL의 ‘제2의 황금기’ “환율위기를 내수시장 개척으로 극복”

2003년 환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 2005 하반기 또다시 고비가 찾아왔으나 CPL은 6~7개월의 노력 끝에 2006년 1월 대한병원협회와 ‘주사기 판매 계약’을 맺어 내수 시장을 개척하고, 스페어타이어 덮개라는 새 생산 품목을 찾아내 이를 타개했다.

또한 2004년 말 노동부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된 후 2005년 9월 임대 생활을 청산하고 새 공장을 지어 이전했다.

2005년 7월 다니는 한국선진학교와 산·학 협력을 맺고 전공과(취업반) 학생들을 교육시켜 생산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철저한 사전 직원교육과 장애유형과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인력 배치로 신입직원의 적응을 돕고 있고, 특수학교 출신 장애청소년을 선별해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여 CPL 및 타 기업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주)씨피엘에서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출·퇴근 차량

또한 직원복지를 위해 매년 우수 직원 5명을 선발해 포상하고 있고, 자녀 장학금(중학교~대학교)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2009년부터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거주지가 먼 직원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급여는 타 기업과 비교 동등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 CPL의 또 다른 꿈 “열정이 있음에 불가능은 없다”

2010년 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제2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CPL 지금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 확대로 의료소모품(붕대, 거즈, 환자복, 마스크 등)의 시장을 넓혔고 기존 1회용 주사기 및 신규 아이템 판매를 확대하고, 국제적 기업을 목표로 수출 시장 확대(러시아, 사우디, 싱가포르 등에 이어 중동 지역 수출계획 준비 중)하여 10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

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세계를 대표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 편견을 비롯한 모든 어려움을 딛고 CPL을 반석 위에 세운 김정록 대표는 “지금까지의 여정은 모두 잊겠다”며 ‘제2의 도전’이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이어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CPL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장애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취재를 마치고 난 후, CPL 사옥을 벗어난 필자는 문득 CPL의 ‘두 번째 도전’에 대해 잠시 생각해봤다. 너무도 큰 꿈이라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꿈과 열정으로 무장한 경영자와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또한 행복해지기를 열망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이 있다면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김정록 대표의 마지막 말을 이제 나도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직원 Interview

이름 : 나민자(여) 나이 : 56세 / 지체장애 6급



(주)씨피엘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민자 씨

Q)업무는 만족하십니까?

A) 6년째 아무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저와 같은 장애인이 매일 같이 현장에 나와 직원들과 밝게 웃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 아닐까요?

Q)김정록 대표님은 어떤 분입니까?

A)저와 같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따뜻한 분입니다.

Q) 회장님에게 건의사항이 있다면?

A) 많은 것을 신경써주시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회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보다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지금보다 많이 근무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근무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A) 곧 있으면 이곳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서의 행복을 받은 만큼 퇴직 후에는 저보다 어려운 장애인에게 그동안 제가 누렸던 행복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습니다.

“피로야 가라!” 겨울철 손쉬운 건강관리법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지방에 쏟아진 ‘눈 폭탄’과 25만에 찾아온 강추위로 여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

미끄러운 빙판 길 위에서 행여 넘어질까 조심히 걷고, 매서운 바람을 피하기 위해 고개와 어깨를 잔뜩 움츠리다 보니 몸의 근육은 긴장하기 일쑤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겨울철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금방 피곤해진다는 호소를 자주한다”며 “추울 때는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도 적고 운동량이 부족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마련인데, 자꾸 움츠리고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 혈관 내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아 쉽게 피로하고 지치게 된다”고 말했다.

에너지를 강화시키고 빠르게 겨울철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 수분과 시원한 공기로 몸을 촉촉하게!

피로를 회복하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특히 겨울철 제철 과일인 감과 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가장 권장할 만하다. 이와 함께 에너지 보충을 위해 신경써야 할 것은 수분 섭취다.

박민선 교수는 “뭉쳐있던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다”며 “몇 잔을 정해두고 마시는 것보다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마시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추위 때문에 외부 공기를 차단시킨 실내는 산소가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므로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상쾌한 공기와 미지근한 물로 몸을 촉촉하게 함으로써 쉽게 피로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섬유질이 듬뿍 담긴 아침을 먹어라**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을 먹는 습관은 에너지를 단·장기적으로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다. 국제 식품과학 및 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섬유질과 탄수화물을 풍부히 먹으면 아침과 점심시간 사이 각성도 정도를 높여 정신을 비교적 맑게 해준다.

섬유질과 탄수화물을 풍부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통밀 토스트나 고섬유질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고섬유질 시리얼 반 컵은 섬유질 14g의 양에 해당하며, 고섬유질 빵은 한 조각에 6g 정도의 섬유질이 포함돼 있다.

하루 섬유질 권장 섭취량은 총 25~30g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15g 정도 밖에 섭취하지 않는다.

◆ 한번 몰아쉬는 것보다 자주 쉼어라

평균적으로 5~10분 쉬어주는 것이 에너지를 즉시 보충시키면서 그 상태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이다. 오래 일하다 한 번에 몰아쉬는 것보다 단 몇 초, 혹은 몇 분이라도 쉬어주는 것이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한다는 것.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컴퓨터와 산업기술 저널에 발표한 연구내용은 이를 잘 뒷받침 해준다. 2시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한 후 14분 정도를 쉬었던 직장인들보다 1시간 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30초씩 4번 쉬었던 직장인들이 업무의 정확도나 속도 면에서 훨씬 뛰어난 수행력을 보였다.

◆ 운동은 만병통치약

박민선 교수는 “겨울 추위로 인해 외부



겨울철 건강관리의 첫 번째 요소 ‘물’

에 나가는 것은 무리이지만, 회사나 집 안에서 간단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 10분 정도의 운동은 다른 에너지 식품을 먹는 것보다 지친 피로감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이다.

◆ 3분 명상 시간을 가져라

피로를 회복하는데 명상이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됐다. 촛불을 켜놓지 않고, 좌상하지 않고, 만트라(mantra)같은 전문 명상을 배우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앉아 눈을 감고 명상에 빠지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을 떨쳐 낼 수 있다.

잠자기 전 침대 위에서도, 목욕을 하는 욕실 안에서도, 조용한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도 어느 때나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천천히 내뿜는 행위를 통해 명상에 잠길 수 있다.



두터운 외투와 목도리로 무장을 한 채 출근하고 있는 서울 시민들

※겨울철 특히 신경써야 할 질병

1. 수족냉증

손발이 찬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기혈순환과 소화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심장의 힘이 약하거나 말초혈관질환으로 사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목, 어깨, 허리디스크, 당뇨 합병증 등으로 기혈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소화기가 좋지 않아도 추위를 타고 손발이 나 배가 차다. 이 경우,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고,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로 열이 올라와도 입이 마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손발이 차지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겨울철 아침, 심장병 뇌졸중

조심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심장, 뇌혈관계 질환.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동맥경화증 합병증도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 특히 아침의 찬 날씨에 외출했다가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거나 혈관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추운 아침에는 외출이나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뇌졸중과 심장질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따뜻한 옷으로 몸 안의 온기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출되는 부분에는 보온이 잘 되는 목도리, 모자 등을 착용해야 하는데 특히

머리부분, 목 뒷부분에 찬바람이 들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3. 흔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병, 감기(독감, 신종플루)

독감과 신종플루는 감기와 증상은 비슷하지만 만성질환자나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가능한 한 코와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외출 후에는 손발은 꼭 씻도록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



‘운동’은 겨울철 건강관리의 필수 요소이다

2010년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

전국 480만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경인년 새해를 맞아 전국의 장애인지도자 및 산하시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10년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를 오는 1월 28일(목)에 개최합니다.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의 장애인지도자 및 산하시설 임직원들이 조직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2010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와 장애인 정책의 공약화를
달성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추진단’을 결성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 행사개요

- 가. 대회명 : 2010년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
- 나. 일 시 : 2010. 1. 28(목) ~ 29(금) 오후 2시
- 다.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경북 경주시 신평동 소재)
- 라. 주 최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 마. 주 관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협회
- 바. 참가대상인원 : 총 400명
 - 협회 임직원 35명
 - 전국 16개 시·도협회장 및 사무처장 32명
 - 전국 232개 시·군·구지회장 232명
 - 전국장애인복지시설장 및 사무국장 55명
 - 기타 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 46명

사. 행사 주요내용

- 개회식 및 신년인사회
 -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
- 명사초청 강의
- 중앙회장 특강
- 중앙회 사업 설명
- 기관 신년 업무보고
- 친교의 시간
- 폐회식

문 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조직지원팀 02-2289-4370~1



정보 게시판

보건복지가족부,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센터 생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센터 생긴다

중증장애인 이상의 전문 치과진료를 수행하는 국내 장애인전문 치과병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05년에 설립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국내 유일(진료환자수 : 연간 약 1만5천명)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지난 2009년 12월 29일(화) 2010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사업기관으로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을 선정해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09년 최초 선정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 ' 10.6월 개원예정(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복지부는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과 치료를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은 해당지역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사업, 장애인 진료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의료 및 치과응급의료체계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시설·장비비 10억원(국비 5억, 지방비 5억)을 지원받게 된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09년 6월 현재 약 242만명으로 이 중 환자의 치과치료 협조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 등)은 약 36만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인은 자가 구강위생 관리가 어렵고, 치과로의 이동 및 치과진료 협조가 힘들기 때문에 제때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질환이 진행·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진료가 힘들고 치과 진료시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09년에 이어 '10년 장애인구

강진료센터 기관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관이 중증장애인의 구강보건의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치과진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013년까지 주요 거점지역에 총 9개의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증장애인 위주의 예방진료 및 간단한 1차 진료 수행 목적으로 2010년에 보건소 6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구강보건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09년까지 구강보건센터 설치 보건소: 26개소

여성부,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 전국적으로 지정·운영

여성부(장관 백희영)는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10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사업』을 대폭 강화 실시한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여성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이하 센터)' 20개소를 지정하여, 장애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과 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의료·법률·취업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여성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16개 시·도에서 추천받아 여성부에서 최종 선정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월중 사업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종사자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역량강화 교육, 고충·진로상담을 통합하여 단순한 프로그램별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여성의 사회참여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과

편견 속에서 교육이나 취업 등의 한계로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여성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 참여가 아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06년) 74만명(37%) → ('07년) 82만명(39%) → ('08년) 88만명(41%)

※ 여성장애인 중졸 이상 학력 33%, 경제활동참가율 25%,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24%, 취업자 월평균수입 59만원 등 남성장애인의 1/2 수준

여성부의 한 관계자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사업이 장애여성의 사회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생활밀착형으로 제공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경기도,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경기도는 올해 '장애아 가족 돌봄서비스' 가정을 120가구로 확대한다.

대상가정은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및 중증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다.

그동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가 되면 해당 월에 서비스지원을 중지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년도 연말까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희망가족이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하여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이 소득 및 개별 가정 방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유무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지난한해 중증 장애아동이 있는 82가정에 연간 3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덜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도록 장애아 가족 21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돌보미는 장애아동 유형에 따

른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교육을 60시간 이수한 후 장애아동가정에 출장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언론문의처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1)249-4318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양곡 50% 할인 공급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 상위계층 가구의 생계보조를 위해 2009년도산 정부양곡을 시중가의 50% 수준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가격은 20kg 기준(1포대) 38,650원으로 이는 지난해 가격인 41,550원에 비해 7% 인하된 가격이며, 구입자는 19,3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9,350원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금년도 공급 물량은 20kg 기준 128,756포대로 공급 상한량은 가구당 최대 월 40kg(1인당 월 10kg)이며, 구입 희망가구에서는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달 16일부터 20일 사이에 각 가정에 무상으로 배달된다.

경기도는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차 상위계층 대상자>

- ▲차 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 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 상위계층 가구
- ▲'09. 6.30현재 기존 차등보육료 2층 대상자이면서 현재 보육료 100% 지원 가구
- ▲'09. 6.30현재 기존 차등교육비2층 대상자이면서 현재 유아학비 100% 지원 가구
- ▲기존 차등보육료 2층 대상자가 나이가 초과되어 신 만5세아로 지원받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07년도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가구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언론문의처 :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031)249-4311

부천시,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모집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를 1월 18일(월)부터 26일(화)까지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6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원이어야 하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공공시설 보수, 거리 청소, 공익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올해 인원은 1일 1천700명이고 총 사업비는 89억3천400만원이다.

참가자에겐 1일 3만3천원의 수당과 3천원의 교

통비 등이 지급되고 4대 보험 가입혜택이 주어지며, 수당의 30%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참가희망자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증명서, 실직·휴직증명서를 등을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032-625-2855)

울산, 울주군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 운영

울산시 울주군이 장애인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을 꺼리는 장애인들의 목욕욕구 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등록 장애인(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된다.

울주군은 장애인 목욕탕 운영을 위해 온양읍 대안리에 소재한 대중목욕탕인 남창탕(대표 허옥숙)을 전용 목욕탕으로 지정하고 핸드레일과 샤워용 휠체어, 샤워의자 등 각종 시설과 소모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용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울주군 사회복지과 우하용 과장은 "일반 대중탕의 경우 시설부족 등에 따른 이유로 이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목욕욕구 해소 등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 운영한다"고 말했다.

*출처 : 울주군청 홈페이지

(<http://www.ulju.ulsan.kr/>)

문의처 : 사회복지과(229-7611)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확대

-금년 저상버스 25대, 교통약자 콜택시 23대 추가 도입 운행-

김해시는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54대와 교통약자 콜택시 50대를 2011년까지 연차별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년말 까지 저상버스 25대와 교통약자 콜택시 23대를 추가 구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계획으로, 교통약자 콜택시의 경우 오는 1월 20일 8대 및 3월중 출고예정인 10대를 포함 4월 1일부터 기존 12대에서 30대로 확대 운행되고 예산 미확보 5대도 1회 추경예산을 확보 구입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약자의 콜택시 이용과 관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시외지역 운행 시 시외버스 요금의 2배내에서 요금을 받던 것을 시외버스 편도요금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을 조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뿐 만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이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또한 지난해 운수업체 사정으로 미구입한 9대를 포함 2010년 예산확보 대수 8대를 금년 상반기중 추가 구입 운행하고, 미확보 8대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연말까지 모두 39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동부 경남의 수부도시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 및 교통약자 콜택시를 최우선 도입·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대중교통담당 ☎ 330-2893

부산시, 도시철도 복지교통카드 추가서비스 시행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2010년 1월 1일부터 도시철도 복지교통카드의 기능을 개선하여 더욱 다양한 추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후불제 복지교통카드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도시철도 복지교통카드를 이용한 지하철 동반보호자 동시 무임승차 서비스와 국가유공자교통카드의 시내버스 무임승차 서비스이다.

그동안 도시철도 복지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탑승하는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중 상이1급의 동반보호자는 신분증 인식 후 무임MS 승차권을 발급받아 이용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기존 발급받은 복지교통카드나 국가유공자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면 지하철 출입게이트가 연속 2회 열려 동반보호자까지 같이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내버스를 무임승차하던 국가유공자(8종 무임대상)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교통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접촉하면 무임승차가 가능해진다.

또한, 환승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지하철-버스> 환승도 개선되는데, 그동안 <버스-지하철-버스> 환승 시 마지막 버스의 환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초 탑승버스 하차 30분 이내가 되어야 환승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턴 지하철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 적용으로 개선하였다.

도시철도 복지교통카드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어르신교통카드, 복지교통카드, 국가유공자교통카드 3종으로 부산은행에서 무료 발급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발급대상자 539천 명 중에서 314천 명(58%)이 발급받았으며, 부산 지하철 일일 총사용은 약 135천 건으로 전체 무임승차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작가 권영식의 '즐거운 디카세상'

"플래쉬와 색필터를 이용한 사진촬영"



METZ 45 COLOR FILTER

국민장과 국장으로 두 분의 전 대통령을 보내고 신종인플루엔자의 공포로 온 국민들이 조바심 속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살았던 2009년이 지나고 희망과 축복의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초부터 103년만의 폭설과 강추위로 쫄쫄 얼어버린 세상이 되어 버렸지만 웬지 마음 만은 포근하고 들뜬 날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시작한 경인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진은 96년쯤 촬영한 걸로 기억됩니다. 95년 포토키나, 브로셔를 구해서 보던 중. 모퉁이 작은 사진에서 그만 눈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작가지만 읽어보니 플래시를 이용해 촬영을 했다고 간단하게 써 있는데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사진을 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 오래 전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때라 정보를 구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플래시와 색필터를 이용해 별브를 이용해 촬영 했겠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바로 시연에 들어 갔습니다.

METZFLASH에 색을 넣기 위해 고민하다가 문방구에서 셀로판지 세트를 100원에 구입했습니다. 여

러 가지 색이 들어 있는 셀로판지를 구입하고 카메라 세팅 후 테스트 촬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방을 어둡게 하고 촬영하는 속성상 플래시 앞에 셀로판지를 대고 촬영하다 보니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놓치고 나면 끝이더군요? 그래서 METZ FLASH 브로셔를 구해서 관련 액세서리가 없나 찾아 보았습니다.색보정 필터라고 하여 6개의 색상별 필터가 들어 있는 세트가 있더군요!

구입을 위하여 남대문으로 용산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 다녀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 보아도 그걸 누가 산다고 보따리로 들어오겠냐고 하더군요? 그 시절에는 카메라 관련 용품이 거의 필수였기 때문에 액세서리 구입 같은 건 하늘에 별따기였습니다.

결국 남대문 거래처에서 보따리 아줌마에게 부탁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렵게 구한 필터를 받아 들고 바로 테스트 촬영을 합니다. 모델을 세우고 초점을 맞춘 다음 조리개 설정, 플래시의 동선 그리고 색상의 배치까지 세밀하게 준비한 다음 불을 끄고 별브셔터로 열고 플래시 광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순간 번쩍

하고 사라지지만 머리 속에서 모두 기억을 하면서 빠진 부분과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미리 그려본 구도에서 벗어나거나 모자라는 부분까지도 계산해서 계속 발광합니다.

테스트 촬영을 하고 현상소에 현상을 의뢰한 후 두 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다림 끝에 필름을 받아 들고 아쉬운 부분은 보완 촬영을 한 후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응용 합니다. 폐광산을 찾아가서 벌브모드 상태에서 20여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노광하고, 누드 모델도 섭외해서 촬영하고 정물 인물 등 많은 촬영하였습니다.

사진은 기기를 이용한 예술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고 해도 다룰 수가 없다면?

브룩스 젠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이란 반은 예술이고 반은 과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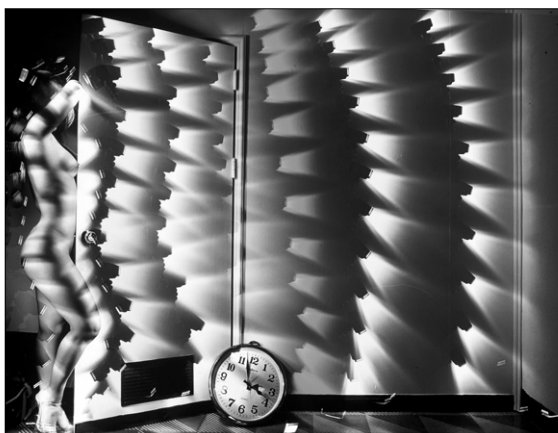
사진에는 사람의 감성이 개입되기도 하지만, 한편 광학, 화학, 전자/전기, 그리고 물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과학의 부분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변수의 수를 줄이면 훨씬 사진을 배우기가 쉬워진다. 사용하는 카메라의 수를 줄이라. 특히 초기에는 이것이 중요하다.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할 수 있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고, 더 좋은 장비가 더 좋은 사진을 만들 거라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사진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진들은 모두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 장비보다 더 구식의 장비로 찍은 사진들이다.

고리타분한 말 같지요? 세월이 지나면 뼈저리게 느끼지만 초기에는 잘 들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사진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이 활성화 되면 좀 더 쉽게 원하는 장면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장시간 노출에 따른 열노이즈 등으로 많은 실망을 주다가 작년부터 출시되는 기종들은 깨끗하게 담을 수 있어서 요즘은 디지털로 많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호에 만나보겠습니다.



Hasselblad 503CX 80mm F2.8 f8 B RVP



제7회 줌인 포토로그 사진 공모전 가작 망각의 시간(NIKON F4E F2.8 35~70mm BLUB f8 RVP METZ-45 Color Filter Scan : FUJI SP-1500)



권영식

(nofilm@nofilm.net)

스튜디오 포토매직 대표 역임
13~18회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공식기록촬영

www.nofilm.co.kr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제도’는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 제도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과 위험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언론에 오르내리며 해당 기업, 특히 장애인단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미 몇 번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고, 방송전파를 타며 협회의 이미지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지도자들의 열정에 큰 상처를 냈기 때문이다.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개최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지난 7월, 김정록 중앙회장의 취임 후 투명하고 깨끗한 지장협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지는 지면을 통해 고용장려금의 주요내용과 부정수급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사업주(지장협)에게 관련 업무에 신중하고 철저히 임해주길 촉구하고자 한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월별상시근로자수의 2%(소수점 이하 올림)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Ponit 1) 상시근로자란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단 소정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2006년 이전은 15일 이상인 근로자)

Point 2) 2% 초과이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발생하지 않음

Point 3) 부담금에서는 2011년부터 적용제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장려금은 2004년 1월부터 적용되지 않음.(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지급단가	
	고용율 30% 이하 인원	고용율 30% 초과인원
경증남성	300,000원	400,000원
경증여성	375,000원	500,000원
중증남성	375,000원	500,000원
중증여성	450,000원	600,000원

예) 상시근로자는 97명, 그 중 장애인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체의 경우

- 30%이내 인원 : 30명 { 97명×30%=29.1명 → 30명(소수점 이하 올림)}
- 30%초과 인원 : 18명 { 50명-30명(30%이내)-2명(지급기준인원)=18명}
- ▶ 30%이내 인원 30명은 기초지급단가를, 30%초과 인원 18명은 초과지급단가를 적용하여 고용장려금 지급됨

◆고용장려금 이중 지급제한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현행 제한대상 장려지원금

－ 고용보험법 : 재고용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보육교사 임금지원, 중소기업 전문 인력채용장려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장복지지원금

○현행 적용제외 장려지원금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금,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등

장려금부정수급

◆장려금 부정수급 제재 내용

○제재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사업주

○제제내용

○장려금 지급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으려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추가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적발시 부정수급금의 2배(×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예) 1백만원을 부정수급할 경우 3백만원 징수

○벌칙규정 : 부정수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문제점

①일부 기업(조직)의 문제가 조직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 확산

②부정수급 조사 및 제재과정에서 장애인근로자 해고, 경영악화 등 정상적 사업운영 불가

③부정수급 위법행위에 따라 단체의 금전적 부담(2배액 징수, 지급제한) 및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 초래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유형1 : 허위 고용 및 임원을 근로자로 신고

☞근로하지도 않는 장애인들을 근로한 것으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원인 부지회장을 근로자로 신청하여 장려금 부정수급

■ 유형2 : 임금 허위 지급 : 지급 후 반환 받음

☞장애인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한 후 전액 또는 일정 금액을 지회에서 반환 받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것처럼 하여 장려금 부정수급 (지회에서 통장을 관리)

■ 유형3 : 임금대장 허위작성 및 급여계좌 이체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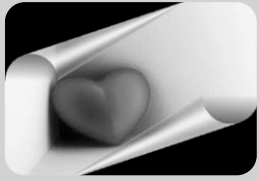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계좌이체 후 차액 분(기부금, 식대 등의 명목)을 되돌려 받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것으로 장려금 부정수급

■ 유형4 : 지회에서 장애인 명의의 통장개설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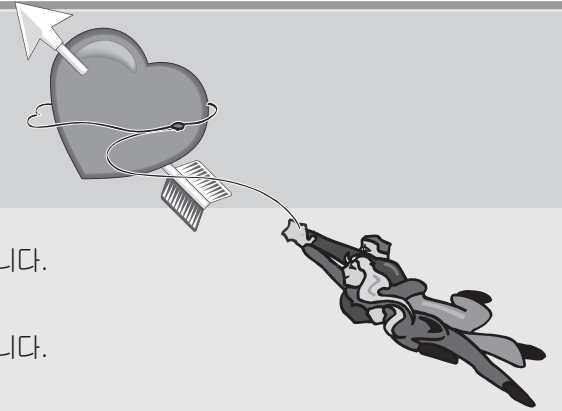
☞근로하지 아니한 장애인에 대하여 임금통장을 개설한 후, 사업주가 통장을 관리(입출금)하는 등 급여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서류를 꾸며 장려금 부정수급

고용정보

	업 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 성별	근 무 내 용	급 여	보험	담당자 연락처
1	생산제조	현수막왕국	서울 중구	무관/무관	현수막작업	월85만원	4대보험	02-2289-4321
2	생산제조	조은사람들	서울	무관/무관	전화접수사무원	월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3	배달업	종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 종로구	무관/무관	지하철택배원	월91만원	4대보험	02-2289-4321
4	생산제조	그린산업	경기 김포시	40세이하/남	세탁물건조작업(수습3개월)	월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5	용역	인덕종합관리	서울	50~65세/남	아파트경비	월84~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6	생산제조	대양테크(주)	경기 화성시	40세이하/무관	캐드설계사	월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7	생산제조	그린텍스(주)	경기 광주시	무관/무관	섬유, 화학연구원	기본급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8	생산제조	(주)한가네	서울 중구	무관/여	단순경리사무원	월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9	용역	(주)티지엠	서울 도봉구	50~65세/남	아파트 경비	월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0	용역	(주)국제건물관리	서울 광진구	50~65세/여	아파트 청소	8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1	용역	(주)국제건물관리	서울 강북구	50~65세/남	아파트외곽청소(쓰레기줍기)	월7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사랑의 전망대



월간 새보람에서는 장애인 여러분의 폭넓은 정보교류를 위해 '구혼' 코너를 매월 고정지면을 통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협회 상담실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289-4381>

※ 구혼 사연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www.kappd.or.kr) 상담실→ 구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신상은 작성자가 밝힌 정보만큼 공개되며 편집자가 선정해 게재합니다.

본 코너를 통해 좋은 만남을 갖고 계시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혼사연

친구처럼 지낼 여성분

저는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장애 2급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조그마한 개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술 한 잔 기쁨이며 친구처럼 지낼 여성분을 찾습니다.

전 혈액형은 A형이고요, 학교는 고졸이며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카센터에 엔진오일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만남 좋은 친구 애인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변인철'님 : 남, 신장2급, 고졸, 회사원, 서울,
010-6546-5451

인생의 반려자를 찾습니다

여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의 반려자를 찾고 있는 50살 노총각, 최현보라고 합니다.

45~55세의 여성 중 기독교를 종교로 하며 긍정적인 분이었으면 합니다.

과거는 절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혹여 자녀가 1명 정도 있더라도 양육하는데 문제없으니 걱정마세요.

관심있는 여성분의 문의 바랍니다.

'최현보'님 : 50세, 남, 기독교,
010-7703-0062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새보람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등촌동에 살고 있는 서연훈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9, 취미는 낚시이고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연락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서연훈'님 : 49세, 남, 기독교,
010-3336-6361

그대와 함께라면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누군가와 함께 하고픈 박종일이라고 합니다.

74년생으로 올해 36세이고 약시로 시각장애 2급입니다.

취미는 음악감상과 여행이고 2남예 장남입니다. 종교는 카톨릭인데 저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났으면 합니다.

현재 저는 안마창업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박종일'님 : 36세, 남, 시각 2급, 카톨릭,
010-4850-1261

인생의 반려자를 찾습니다.



91년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한동안 고생했습니다만 꾸준한 운동으로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되어 경증 장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문에 구혼광고를 내어 무슨 효과나 있을까 싶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 다만 나의 인연이 어떤 계기로 내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문득 하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경증 장애인이거나 '건강한 여성분'이었으면 좋겠고요. 나이는 30대 전·후 결혼에 실패하신 분도 개의치 않습니다.

앞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진짜 '인생의 반려자'를 찾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해서 좋은 인연으로

맺어 졌으면 합니다.

주위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단, 장난전화나 콜렉트콜은 사절합니다.

'정항배'님 : 37세, 남, 지체장애,
010-5345-2312,
sesimbc@hanmail.net

겨울...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네요.

용기내서 다시 한 번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산은 하얗게 내린 눈으로 갈아입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저에 마음은 아직도 웃을 갈아입지 못하고 있네요.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그것은 저와 함께 할 여성분이 없다는 거죠.

저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여성분 연락 주세요...

'이현규'님 : 42세, 남, 지체3급, 회사원, 고졸,
010-2230-5505

겨울은 다가오고...

싸늘한 바람.

고개를 숙이며 걷고 있는 사람들.

이제 겨울이 오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박성근이라고 합니다.

지체4급이지만 생활보호대상이어서 한달에 40여만원이 나옵니다.

제 소유의 집이 있어 텃밭에서 야채도 키울 수 있고 형수가 1년에 쌀 3가마니를 대주고 있어 생활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젠 따뜻한 여성분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싶어지네요.

나이는 48세 이상, 자녀가 없고 저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이고 가급적이면

경증장애를 가진 여성분이었으면 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박성근'님 : 53세, 남, 지체4급,
010-5743-8383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7년생인 서영식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니 어느덧 인생에 중반까지 오게 되

었네요.

그동안 살면서 참 즐겁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상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네요.

이럴 때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인생을 같이 즐기면서 세상을 같이 갈수 있는 평생에 배우자를 찾고 싶습니다.

비록 한쪽다리가 불편한 지체 3급에 장애인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 왔습니다. 또한 크지는 않지만 조금만한 전셋집도 갖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힘든 일은 하지 못하지만 지체 장애인 협회 의정부 시지회에서 임직원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한 행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개구혼 글귀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함께 남은여생을 보내시고 싶으신 여성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저 서영식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저와 인연이 되시는 여성분께 행복한 삶을 사시도록 이 한 몸 바쳐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

'서영식'님 : 53세, 남, 지체3급, 의정부,
010-7548-0131

칼럼

“돈도 없고 도움미도 없어서”

(여성장애인 출산 특별지원의 필요성)

조 윤 경(장애인 푸른 아우성 대표)

세계 어느 곳을 둘러봐도 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인종, 성별, 연령 등 매우 다양하고 뿌리 깊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인류에 출산이라는 커다란 공헌을 해왔음에도 이러한 차별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논의 되어 온 주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인 모성성이 강조된 사회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잘 해내야만 하는 구조이다.

위에서 언급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잘 해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여성장애인들이다. 여성장애인이라고 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닐진대 왜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

우선 여성장애인들은 자신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거에서 몸에 맞는 편

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주거 형태는 아기 목욕 시키기, 우유 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등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싱크대와 빨래 건조대가 여성장애인의 몸에 맞지않게 높게 설치되어 있고, 목욕탕은 좁거나 미끄러워서 혼자 들어가기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아기를 먹일 분유를 사러 아기를 안고서 같이 가야하는데 휠체어를 타거나, 시각장애인들이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세 번째로 장애가 있음으로 기본 체력이 약한 여성장애인들은 산후조리에서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물이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여성장애인을 이해하며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어야 한다. 또 하나, 출산 과정이나 양육에서 산모나 아

기가 아플 경우에 위급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신속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불편과 위험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은 모성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리게 된다.

최후의 경우 경제적 위기 상황이 오면 저소득층 여성은 적은 급여라도 경제를 나눠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육아와 가사를 혼자의 힘으로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출산에 따르는 추가비용만 지급하면 되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출산을 한 후 가사와 육아만 해내기에도 벅차고 직업을 구한다는건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을 출산과 육아를 보조해 줄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기본 권리이다. 더구나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시기에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금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높은 물가, 높은 사교육비, 장애로 인해 더해지는 부담을 함께 분담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든 예산을 빼먹을 궁리만 한다.

출산과 양육에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중증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지원을 위한 예산 4억8천만원, 이 금액을 제대로 지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장애인을 적극 지원하여 당연한 권리인 출산과 육아에 두려움을 없애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인적 경쟁력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장애인 푸른 아우성
조윤경 대표

2000/10-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연
2000/1~2002.1 : 뇌성마비 모임 '어우리기' 회장
2001/12- : '인간극장' 출연
2002/4- : KBS '아침마당' 출연
2002/5- : 장애인 정보광장 '동인' 회장
2003/3~2003.10 :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랜드 케어' 소장역임
2004 : 서울 디지털 대학 상담심리학부 재학
2005 : 에이블 뉴스 조윤경 성 칼럼 연재
2008~ : '새보람' 조윤경 칼럼 연재
현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대표

인권영화제 상영작&신진감독 제작지원 공모 신진감독 선정해 제작비 200만원 지원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집행위원회가 '제8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상영작품과 제작지원을 받아 영화를 만들 신진감독을 공개 모집한다.

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장애인의 삶을 담아 제작한 영화들을 상영하는 '제8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주최로 오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이 영화제에 자신의 창작물을 출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월 19일까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작품은 장애 및 장애인권 관련 소재나 주제를 담은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당사자가 만든 작품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작품의 장르 및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신진감독 제작지원 대상자는 극장, 영화제, 방송 등을 통해 상영한 작품이 2편 이하인 장애인 제작자로, 제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들었던 장애인인권에 관한 40분 이내의 영상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제작자에게는 총 2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제작된 작품은 2011년 개최될 '제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3월 19일까지 제작지원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와 기존작품 1편 등을 직접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영화제 출품작 및 제작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www.420.or.kr/fe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 문의 및 접수처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
- 전화 : 02-929-9890
- 팩스 : 02-6008-5789
- 이메일 : dcs03@korea.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2가 74-13 인성빌딩 지층

장애인 문화예술의 길 '세상으뜸'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경민 씨와 '동요드림'이 협연공연을 펼치고 있다.

강남장애인복지관(관장 박정근)은 지난 2009년 12월 22일(화) 강남구민회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기획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과 10월에 이어 강남구의 후원으로 3회째 진행되는 이번 액티브아트캠페인 '세상으뜸'은 1회의 공연과 일주일간 진행되는 자선전시회로 마련됐다.

먼저 22일 열린 공연에는 밴드, 가요, 피아노연주,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선보였는데, 우아한 황금의 목소리 테너 최승원과 소프라노 김선영이 출연해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아리아 '축배의 노래'를 열창했다.

특히, 1급 뇌병변장애를 딛고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경민 씨가 참가해 관객들

에게 감미로운 로맨스연주를 선사했고, 비장애인중창단 '동요드림'과의 협연을 통해 음악으로 비장애인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다.

한편 김도희, 김영신, 김정옥, 김정희 등의 후원작가와 강인규, 강주혜, 고민숙, 광성녀 씨 등의 장애인작가가 참여한 '자선전시회'에는 장애작가와 후원작가의 작품 40여점을 선보이며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액티브아트캠페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넘어 문화예술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장애인문화예술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본지에 게재된 수기는 지난 2009년 10월 13일(화)과 14일(수) 양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의 주관으로 개최된 『2009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장애인들의 '애환'과 장애극복을 통한 '삶의 의욕'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아내에게 행복을 선물 받다” ①

하 용복 (경기 수원시,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지난 2009년 10월 13일(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09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는 하용복 씨

장애인이니 제가 행복을 느끼며 살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이란 놈은 저와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장애를 얻게 된 것은 1948년, 4살 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안계셨기에 아버님께서 일을 하실 때마다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어린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와 똑같이 아버지가 배달하는 자전거 뒤에 올라 술 배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옷이 바퀴에 걸리더니 저는 그 큰 자전거 바퀴에 몸을 한 바퀴 굴렀습니다. 그 때부터 오른 쪽 몸이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도 왼쪽에 비해 현저히 말라있습니다. 제가 왼손잡이가 된 것이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 때는 제대로 고칠 병원도 없었고 병원에 갈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했기에 치료할 기회마저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동냥을 하며 먹을 것을 해결하였고 막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일을 해가며 죽지 못해 살았고,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모든 게 불행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며 아무 것도 변할 것도 없을 것 같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아는 분이 저에게 지금의 아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때는 나가기 싫었지만 아는 분이 워낙 부탁을 했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본 아내는 아름다웠습니다. 첫눈에 아내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사람과 달리 편견 없이 저에게는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었고 빛이 되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과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결혼해 노점으로 감자국 장사를 시작했

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또 다른 행복이 될 저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972년 큰 아이를 얻고 1976년 둘째, 1978년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 돌봐주신 덕택인지 몇 년 후 돈을 모아 노점상이 아닌 가게에서 감자국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아침 밤낮으로 장사 준비를 했고 자기 몸이 상해 가는지도 모르게 3명의 자식들을 위해서 일만 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저희 막내가 6학년이 되어 이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생각 했을 때 아내가 가게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갔을 때 의사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 디스크가 이 정도로 심했으면 많이 아프셨을 텐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셨네요. 오랫동안 치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줬어야 하는데 내가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나 무심 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나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아내를 보며 얼마나 눈물을 삼켰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미안하고 미안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년 뒤, 아내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여전히 잘 움직이지 못했고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죄책감에 아내를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내 옆에는 내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크게 용기를 내어 아내 병실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힘이 하나도 없는 손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20 여 년 동안 아내의 손이 이렇게 거칠어 졌구나. 아내의 손이 이렇게나 아위었구나”라는 생각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일반 병실로 온 아내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은 옆에서 같이 생활하는 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독자투고



“오빠는 우리 집 활력소!”

강진아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강형중 사원 동생)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강형중 사원과 여동생 강진아 씨(왼쪽)

“딩동!, 나 왔슈~”

현관문을 들어서면 오빠의 퇴근길은 오늘도 밝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을 법도 한데 오빠는 오자마자 작업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해주기 바쁩니다.

“다른 여자들이랑 말하면 안돼~ 헤미한테 혼나”, “작업할 때는 떠들면 안 되는 거지?”, “오늘은 견덕이가(정덕이 오빠), 용범이가, 지연이가, 부장님이, 선생님이...” 등등

이런 오빠요? 때론 귀찮을 때도 있죠. 귀가 하도 따가워서,

“알았어! 내일 또 얘기하고 얼른 씻고 밥 먹자”라며 말을 돌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내면적으로 몰라보게 성장한 오빠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웃게 됩니다.

오빠와 저는 두 살 터울로 남동생처럼 어렸을 적엔 티격태격 많이도 싸웠답니다. 그땐 무조건 오빠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형제를 둔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교육받고 봉사하는 ‘장애인 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저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과 충분히 그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학과에서 직업재활과 직업특수교육을 공부하여 현재 인천인혜학교 특수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빠는 제가 교사인 것이 자랑스러운가봅니다.

“엄마, 진아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진아가 선생님이라서 좋아”라는 오빠의 말 한마디가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변화된 오빠를 있게 한건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인내로 단 1%라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부모님과 무엇보다도 오빠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신 작업장 여러 선생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직업적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통합되어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만족, 기쁨을 느끼는 오빠가 참 자랑스러우며 그런 오빠를 볼 때마다 저는 더 큰 자부심과 삶에 대한 도전이 생깁니다.

밖에선 장애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이지만 집에선 오히려 오빠가 아침마다 깨워줘야 일어나는 철없는 동생일 뿐이지요.

우리 집 수리공, 우리 집 알람시계... 오빠의 별명은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오빠를 ‘우리 집 활력소!’라고 부르고 싶네요.

언제나 우리 오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길에 나섭니다.

“나 간다유~~~”라는 오빠만의 유행어를 외치며...

밝고 건강한 장애인 복지실현을 위하여

2010년 庚寅年을 맞이하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밝고 건강한 장애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설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항상 곁에 있는 든든한 이웃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힘찬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번지 이룸센터 3층
[우:150-874] 전화 02-796-4280 / 팩스 02-796-4281